

부문별 주요 기사

10월 16일~11월 15일

대내경제
농업 및 식량
대외경제
남북경협

부문별 주요 기사

10월 16일~11월 15일

대내경제 89

- 평양에 택시급증...1천대 훌쩍제 운행 | 89
 - 북, 러시아와 협력해 평덕·평남선 철도 개보수 착수 | 89
 - 평양 순안국제공항 2청사 건설 마무리 단계 | 90
 - 북-중 신압록강대교, 개통 무기한 연기 | 90
 - 북 휴대전화, 한 달에 천원 내면 200분 기본 통화 | 90
 -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세계 하위 11~16% 수준 | 91
 - 북 김정은 “고난의 행군시기 산림자원 많이 줄었다” | 91
-

농업 및 식량 92

- 북 「노동신문」 “식량문제, 남에게 기대 걸면 안 돼” | 92
 - “아일랜드 NGO, 20억 규모 새 대북지원 추진” | 92
-

대외경제 93

- 북한 “인구 절반 준비된 노동력”…중국기업에 ‘손짓’ | 93
북 「노동신문」, ‘反서방 중심’으로 러시아 부각 주목 | 93
러시아-북한 교역서 러 통화 루블화 결제 시작 | 94
자금세탁방지기구, 북 ‘돈세탁 위험국가’ 재지정 | 94
러시아-북한 비자면제 문제 논의 착수 | 94
북 김영남 아프리카 순방 마무리…‘고립탈피’ 초점 | 95
북 “내륙철도 현대화, 남북-유라시아 철도 첫 단계” | 95
북·중 원유거래 정상…통계 고의누락 추정 | 96

남북경협 97

- 대북투자방향 기업, 김정은 승계 직후보다 10%P↑ | 97
꽤 활발했던 인천시 ‘남북교류사업’ 잇단 무산 위기 | 97
현대研 “금강산관광, 단순 여행상품 아니다…통일 시발점” | 98
통일부 “한중 FTA로 개성공단 경쟁력 제고” | 98
-

대내경제

평양에 택시급증...1천대 훌쩍제 운행

평양에 택시가 급증해 북한 당국이 훌쩍제로 운행 대수를 관리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북한을 다녀온 학자를 인용해 21일 보도함. 베이징(北京)에 거주하는 동아시아학연구자 이라마키 마사유키씨에 의하면 현재 평양에는 총 1천대의 택시가 있으며, 당국이 번호판의 번호가 홀수인 차는 홀수일, 짝수인 차는 짝수일에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함. 평양에서는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전후해 중국산 택시가 등장했고, 올 초 시점에서 500대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 5월 홍콩회사가 참여하면서 500대가 신규 투입돼 총 1천대로 늘어났다고 통신은 전함. 평양에서는 초기에 도입된 낡은 차체의 택시가 거의 사라진 가운데, 두 가지 색상으로 통일된 새 차체를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으며, 기본요금은 4km에 2달러라고 통신은 보도함. **연합뉴스**, 10.21

북, 러시아와 협력해 평덕·평남선 철도 개보수 착수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으로 남포에서 평양을 거쳐 덕천으로 이어지는 내륙철도의 개보수에 착수했다고 21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이번에 개보수에 들어간 재동역에서 강동역을 연결하는 평덕선은 북한의 최대 석탄산지인 재동탄광, 북창탄광, 덕천탄광 등을 연결하는 산업철도로 이 철도구간에 있는 신성천역은 북한 주요 물류기지의 하나로 알려짐. 착공식에는 북-러 정부 간 통상경제·과학기술 협력위원회 북측 위원장인 리룡남 대외경제상과 북-러 협력위 러시아 측 위원장인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북 러시아 대사 등이 참석함. 올레그 시쇼프 러시아 '모스토비크' 과학생산연합체 위원장인 브리지그룹 총사장과 원필중 북한 철도성 참모장은 착공연설에서 “조(북)·러 인민들의 공동의 발전과 이익에 부합되는 대규모 협조계획 실현의 첫 단계인 철도 개건이 두 나라 사이의 경제협조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고 밝혀 이번 철도 개보수 사업이 러시아와 협력사업으로 이뤄지는 것임을 확인함. **연합뉴스**, 10.21

평양 순안국제공항 2청사 건설 마무리 단계

북한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평양 순안공항 2청사 건설이 마무리 단계라고 미국 「AP 통신」이 평양발로 22일 보도함. 통신은 평양이 국제적인 허브 도시는 아니지만, 북한 당국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외화를 획득하는 것을 최우선순위 어젠다로 삼아 수천 명의 군인 인력을 동원해 새 공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함. 통신은 평양이 항공편을 통해 '은둔의 나라'인 북한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지만, 공항은 큰 창고 크기 규모의 임시 터미널과 단 하나밖에 없는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 그리고 자그마한 면세점 및 서적·기념품 가게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함. 현재 공항에는 대부분 중국, 또 가끔 러시아로 향하거나 그쪽에서 오는 항공편이 하루에 몇 편만 뜨고 내리고 있음. **연합뉴스**, 10.23

북-중 신압록강대교, 개통 무기한 연기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의 개통 시점이 애초 알려진 이달 말에서 무기한 연기됐다고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가 31일 보도함. 신문은 단둥시 정부 측이 그동안 북한과 연결된 신압록강대교 및 새 통상구(세관·검역·출입국관리시설)가 30일부터 가동된다는 계획을 밝혀왔지만, 사업계획상 교량 본체와 함께 완공됐어야 할 북한 쪽 접속교량이 건설되지 않으면서 대교 개통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전함. 북·중 경협이 상징으로 꼽혀온 신압록강대교는 총연장 3천26m, 왕복 4차로의 사장교(斜張橋)로 2010년 말 착공해 현재 교량 건설이 마무리된 상태인. 단둥의 소식통들은 중국이 신압록강대교의 북한 쪽 인프라 건설 지원에 소극적인 이유로 지난해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악화한 양국관계와 '정상적인 국가관계' 정립을 원하는 중국 측 태도 변화를 꼽고 있음. **연합뉴스**, 11.3

북 휴대전화, 한 달에 천원 내면 200분 기본 통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4일 북-중 접경지역의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북한 휴대전화의 기본요금을 북한 돈 1천원이며 이 금액이면 한 달에 200분의 통화를 할 수 있다고 보도함. 지난달 15일 현재 북한 시장에서 환율이 1달러당 평균 8천200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 돈 1천원은

약 12센트(약 129원)에 불과함. 하지만 휴대전화 사용자가 기본 통화량 200분을 모두 사용하고 추가로 통화를 했을 때는 해당 추가요금을 외화로 내야 하는데, 추가요금은 100분당 중국 돈 80위안(약 1만4천원)으로 기본요금과 비교하면 훨씬 비싼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통화량이 많은 북한 주민들은 비싼 추가요금을 내지 않고 많은 통화를 하려고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1대씩 더 개봉해 매달 기본 통화량 400분을 사용한다고 소식통이 전함. 「RFA」는 북한이 휴대전화 기본요금을 이처럼 저렴하게 정한 것은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간부들의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전함. **Radio Free Asia, 연합뉴스, 11.4**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세계 하위 11~16% 수준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90년에는 세계적으로 하위 30%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11~16%선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문성민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장은 6일 한은이 발간한 ‘통계를 이용한 북한 경제 이해’에 실린 ‘북한 국민소득 통계 소개 및 소득수준 비교’ 논문에서 북한의 국민소득을 추정하는 한은, 유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자료를 비교 분석함. 기관별로 큰 차이는 없지만 북한의 국민소득 추세는 비슷한 흐름을 보임. 국가순위 백분율로 북한의 국민소득 수준을 보면 1990년만 해도 하위 30%초반(유엔 31.9%, 한은 31.2%, 미국CIA 30.8%)에 있었으나 경제 성장이 지체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해 2011년에는 10% 초중반(유엔 10.9%, 한은 15.9% 미국CIA 16.1%)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됨. **연합뉴스, 11.6**

북 김정은 “고난의 행군시기 산림자원 많이 줄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에 있는 중앙양묘장을 시찰하고 나무심기 운동에 대대적으로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김정은 제1위원장은 중앙양묘장의 묘목온실, 묘목포전, 나무모영양단지 등을 둘러본 뒤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나라의 산림자원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산림 황폐화 수준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많은 아사자가 발생한 1990년대 중·후반 경제난 때 산림 훼손이 심각했던 상황을 최고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눈길을 끄. 당시 북한에서는 주민의 취사·난방용 땔감 마련, 외화 획득을 위한 목재 수출, 식량난 해결을 위한 다락밭(계단밭) 개간, 심지어 나무껍질의 식량 대용 등으로 무분별한 산림 남벌이 이뤄진바 있음. **연합뉴스, 11.11**

농업 및 식량

북 「노동신문」 “식량문제, 남에게 기대 걸면 안 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유엔이 정한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식량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노동신문」은 이날 ‘식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란 제목의 기사에서 “남에게 기대를 걸어서는 언제 가도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현대과학기술에 의거해 자기 인민의 힘을 발동하는 농업정책을 실시한다면 식량 위기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함.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남북관계가 막혀 있고 북중관계도 좋지 않아 남한과 중국으로부터 비료나 식량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10.16

“아일랜드 NGO, 20억 규모 새 대북지원 추진”

십수 년째 북한을 지원해온 아일랜드의 한 비정부기구가 150만유로(약 20억 3천만원) 규모의 새로운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5일 전함. 아일랜드 NGO ‘컨선 월드아이드’의 이파 블랙 북한 담당관은 이 방송에 내년 초부터 북한 강원도 지역에서 영양 개선 및 식량지원 사업을 새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힘. 블랙 담당관은 이 단체의 대북지원사업이 강원도 통천군과 법동군에 집중될 것이라며 “두 지역 주민들에게 보전농법을 전수하고 협동농장에 관개시설을 설치해줄 것”이라고 전함. 보전농법은 작물을 바꿔 심거나 덮개작물을 활용하는 농법으로 수확량 증대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짐. 그는 앞으로 3년 반 동안 진행될 이 사업에 필요한 150만유로의 예산 지원을 최근 유럽연합(EU)에 신청했다며 EU의 승인이 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임. 이 단체는 올해에는 200만유로(약 27억원)의 예산으로 황해도와 평안도 등에서 식량 지원 및 식수·위생 개선사업을 진행 중임. 이 단체는 북한에서 ‘유럽연합 지원계획 제3단계’로 활동하면서 1997년부터 식량문제 해결과 산림 황폐화 방지, 식수·위생 개선 활동을 펼쳐옴. **Voice of America, 연합뉴스**, 11.5

대외경제

북한 “인구 절반 준비된 노동력”...중국기업에 ‘손짓’

최근 20여 개 달하는 중앙·지방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외자 유치에 주력하는 북한이 중국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자국의 노동력 현황을 구체적으로 선전해 눈길을 끌고 있음. 지난 16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개막해 20일 막을 내린 ‘제3회 중·조(북한)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은 이번 박람회 기간 중국기업과 투자자들을 상대로 자국의 투자환경을 홍보하는데 공을 들임. 북한 대외경제성 국가경제개발총국은 박람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북한 인구가 지난해 기준으로 2천434만 5천명이며 1972년부터 실시해오던 11년제 무상 의무교육제를 올해부터 12년제로 확대했다고 소개함. 국가경제개발총국은 투자환경 홍보자료에서 “우리나라는 교육수준이 높고 지적잠재력이 튼튼히 준비돼 있다”면서 “무상 의무교육제도로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임의의 직종에 적용할 수 있게 준비된 노동력이 2008년 기준으로 1천217만 6천명에 이른다”고 주장함. 이처럼 북한이 북·중 박람회에서 자국의 경제특구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법률·세제 혜택과 함께 우수한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기업들의 구인난 때문인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10.20

북 「노동신문」, ‘反서방 중심’으로 러시아 부각 주목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반(反) 서방진영의 중심으로 러시아를 내세우며 ‘노골적인 편들기’에 열중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음. 「노동신문」은 20일 ‘국방력 강화를 위한 러시아의 노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러시아가 미국 중심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대응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움직임을 크게 부각함. 신문은 “나토의 무력창설 움직임은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 “러시아의 국방력 강화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 공갈에 맞서려는 것”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러시아의 군사력 강화가 서방의 불합리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북한 매체의 ‘러시아 편들기’는 서방사회의 제재로 인한 고립무원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탈출구로서 전통적인 우호국인 러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10.20

러시아-북한 교역서 러 통화 루블화 결제 시작

러시아와 북한이 이번 달에 처음으로 무역 대금을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결제했다고 러시아 극동개발부가 20일(현지시간) 밝혔다. 극동개발부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보도문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 양국이 제6차 정부 간 통상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 합의에 따라 루블화 결제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러-북 양국은 지난 6월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한 정부 간 통상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루블화 결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양측 간의 루블화 결제는 그동안 기술적 문제로 연기돼 왔음.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앞서 러-북 간의 교역을 2020년까지 10억달러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루블화 결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음.

연합뉴스, 10.20

자금세탁방지기구, 북 ‘돈세탁 위험국가’ 재지정

북한이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단속 협력을 위해 국제기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돈세탁 위험국가’로 재지정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대변인실은 VOA에 “북한을 이란과 함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국가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FATF는 2011년 2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주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으로 상향 조정한 뒤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FATF 대변인실은 북한이 지난 6월 이후 FATF와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단속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중대한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고위급이 계획 이행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OA」가 전함. 연합뉴스, 10.27

러시아-북한 비자면제 문제 논의 착수

최근 들어 급속도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이 비자 면제 협정 체결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지난 20~24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갈루슈카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국 관계 일정에서 무비자 제도 도입에 관한 문제가 제기됐으며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전함. 양국이 무비자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신이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이 앞서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의미임. 무비자 제도는 관련 협정 체결 당사국들이 3개월 이하 단기로 자국을 찾는 상대국 방문자들에게 비자를 면제해주는 제도임. 비즈니스 상담·관광 등의 목적으로 상대국을 찾는 방문자들이 크게 늘어나 협정 당사국들 간 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평가됨. **연합뉴스**, 10.28

북 김영남 아프리카 순방 마무리…‘고립탈피’ 초점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주간의 아프리카 3개국(수단, 콩고, 우간다) 순방을 마치고 3일 귀환함. 이번 순방은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로 코너에 몰린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음. 이번 순방 기간 북한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군사·보건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보임. 「AP통신」은 무세베니 대통령이 반(反)서방 성향이라는 점과 북한이 지금도 우간다 전투기 조종사 훈련에 관여하는 등 군사적 교류를 이어온 점에 주목함. 북한은 과거에도 반서방 성향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군사고문단을 파견하고 무기를 수출하는 등 군사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왔음. 이 밖에도 북한은 우간다와 외교당국간 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콩고와는 보건 부문 협조에 관한 양해문에 조인함. 북한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의료진을 파견하는 등 보건 분야 지원을 통해 외화벌이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음. **연합뉴스**, 11.4

북 “내륙철도 현대화, 남북-유라시아 철도 첫 단계”

북한 내각 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의 김철호 부국장은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 11월 8일자에 실린 인터뷰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합작으로 추진하는 재동역-강동역-남포역 구간 철도 현대화 사업이 “조로(북러)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발전과 이익에 부합되는 대규모 철도협조계획 실현의 첫 단계”라고 밝힘. 이어 “이번에 진행되는 철도 개선사업은 모스크바 선언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협조사업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임. 모스크바 선언은 2001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체결한 것으로, 그 중 6항에서 양국이 남북한과 러시아, 유럽을 잇는 철도 건설사업에 노력을 기울인다고 규정함. 러시아어로 ‘포베다(승리)’라는 이름이

붙은 이 사업에는 러시아 토목건설회사인 '모스토빅'이 참가하며 250억달러(약 27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이 지금은 러시아 기업들이 북한 지하자원 개발과 판매를 통해 충당할 것으로 알려짐. 북한 관리가 러시아와의 내륙철도 현대화 사업이 남북한-러시아-유럽 철도 건설사업의 첫 단계라고 강조한 것은 이 사업에 남한을 끌어들이 3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음. **연합뉴스**, 11.11

북·중 원유거래 정상...통계 고의누락 추정

중국 정부의 통계 수치상으로는 올해 들어 이례적으로 중국이 장기간 북한에 원유를 전혀 수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짐. 정부 당국자는 14일 “중국 통계에는 원유 수출이 전혀 안 잡혔지만 실제로는 수출 방식이든 원조 방식이든 원유를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중국이 민감한 원유 수출 통계 수치가 외부의 주목을 받는 것을 꺼려 고의로 누락시키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힘. 정보 당국 관계자도 “중국의 원유 공급이 없으면 북한의 산업 시설 운영이 대거 중단되고 차량 운행도 줄어야 하는데 그런 징후가 없다”며 “중국이 대북제재를 한다는 것을 외부에 보여주려는 것이거나 민감성 때문에 해당 수치를 일부러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북한 내 휘발유 소비 가격이 1kg당 9위안(약 1천600원) 가량으로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북한의 원유 수급이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로 지적됨. 우리나라의 관세청 격인 중국 해관총서가 공개하는 무역 통계상으로는 올해 1~9월 중국이 북한에 원유를 전혀 수출하지 않음.

연합뉴스, 11.14

남북경협

대북투자의향 기업, 김정은 승계 직후보다 10%P ↑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남북경협 기업 100개사와 국내 매출액 상위 200개사를 대상으로 통일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본 결과, 43.7%는 ‘초기 충격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하는 등 전체적으로 83% 이상이 기대한다는 답을 내놓음. 부정적 견해는 16% 정도에 그침. 최근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방문으로 대북투자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커진 것으로 나타남. 대북사업 추진 의향을 묻자 34.1%는 ‘투자환경이 안정되면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 승계 직후인 2012년 2월 당시 조사와 비교하면 투자 의향을 내비친 기업의 비중이 10.5%포인트나 늘었음. 대북투자 진출이 유망한 분야로는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가공기지 구축(53.8%)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북한 내 인프라 구축 참여(13.6%), 지하자원 개발(11.3%), 북한 소비시장 진출(9.6%), 동북아 진출거점 활용(4.6%) 순으로 답함. 대한상의는 “북한이 19개의 특구·개발구를 신설하고 책임경영제를 도입하는 등 고립을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이 기업들의 기대감에 작용한 것 같다”고 밝힘. **연합뉴스**, 10.27

꽤 활발했던 인천시 ‘남북교류사업’ 잇단 무산 위기

인천시의 남북교류 사업이 잇따라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4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매년 초 시가 주최하던 ‘인천 평화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는 내년 인천시의 재정난 때문에 개최가 불투명해짐. 남북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중국 단둥시에 조성된 축구화 공장도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며 운영을 지속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협력사업은 아니지만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14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 사업도 올해 지난 8월 백령도에서 열릴 계획이었지만 행사 주최 기관인 인천문화재단과 참여작가 간의 갈등, 시 재정난에 따른 예산 확보 어려움 등이 겹치며 무산됐음. 시민단체들은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 대표팀이 참가하고 대회 폐회식에 북한의 실세 3인방이 참석하는 등 인천이 남북화해의 상징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건을 시가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연합뉴스**, 11.4

현대研 “금강산관광, 단순 여행상품 아니다…통일 시발점”

18일 금강산관광 시작 16주년을 맞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금강산관광과 같은 남북간 관광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장함.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연구위원은 11일 낸 ‘금강산관광 16주년 의미와 과제’ 보고서에서 “금강산관광은 단순한 관광상품이 아니라 남북한 신뢰 형성의 단초와 민족통일의 시발점을 제공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이처럼 말함. 보고서는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통일대박’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첫 걸음으로 남북경협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관광협력은 가장 쉽고 빠르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말함. 이어 “특히 금강산관광 재개는 북한의 경제 개발과 개방 지원 정책의 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임. **연합뉴스**, 11.11

통일부 “한중 FTA로 개성공단 경쟁력 제고”

통일부는 11일 개성공단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것에 대해 “개성공단 생산품의 대중 수출이 확대되고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힘.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중 FTA는 개성공단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역외가공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판정하기로 해 개성공단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된다”며 이같이 기대했음.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이 역외가공 지역으로 인정되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조건을 달지는 추후 더 협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임. **연합뉴스**, 11.11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